

전쟁·안보불안에 지난해 전 세계가 쓴 국방비 2930조원

영국국제문제전략연구소 "세계 국방비 전년보다 9% 증가" 사상 최대 미국 포함 나토 방위비 57.8%...북한 도발에 한국·일본 국방비 늘어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2조2000억 달러(약 2930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13일(현지시간)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작년 총액이 전년보다 9% 증가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전 세계에 안보 불안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각국 발표를 토대로 보면 올해 국방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 지출했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36% 수준인 9000억달러(약 1200조원)로 40.5%를 차지했고,

나머지 나토 회원국이 17.3%였다.

나토에 중국(10%)과 러시아(4.8%)까지 포함하면 세계 국방비의 70%가 넘는다.

바스티안 기게리히 IISS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이란의 대미 저항세력 결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의 야심 등이 "전략적 불안정성과 세력 경쟁의 새로운 시대"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안보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바쁜 또 다른 한 해를 보냈고 이동식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로 보이는 미사일을 공개·실험했다. 한국의 대응령은 한때 자체 핵 프로그램 추진

아이디어를 냈다"고 짚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비가 29년 연속으로 늘어 지난해 1조5500위안(약 286조원)으로 아시아 지역의 43%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전력 증강이 이웃 국가들의 국방비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대만은 올해 GDP의 약 2.6%인 6천68억 대만달러(약 25조원)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발표했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이 더해져 한국과 일본도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방예산은 총 348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일본은 2022년 11월 공개한 계획에서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위협의 영향으로 국방비가 늘

었다. 미국 외 나토 동맹국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국방비를 32% 늘렸다.

나토 국방비 목표인 GDP의 2%를 달성한 유럽 동맹국은 2014년 2개국에서 2022년 8개국, 지난해 10개국으로 늘었다.

러시아는 연간 정부 지출의 30% 이상인 1080억 달러(약 144조원) 국방에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국방비는 우크라이나(310억달러·41조원)의 3배를 넘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갖고 있던 주력 전차 거의 대부분(약 3000대)을 잃은 대신 구식 무기 약 2000대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앞으로 약 3년간 대규모 전차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추정했다.

연구소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다른 나라의 군비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전에 대비해서 군사 장비 생산을 늘리고 물자를 더 많이 비축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

이다. 또 우크라이나전에서 무인기 사용과 참호전 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에 함대를 겨냥해서 저렴한 무인 해상차량(UVC)을 사용한 점 등을 다른 나라들이 눈여겨봤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벤 배리 IISS 선임 육상전 분석가는 워싱턴 기자들에게 우방국들이 "정말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바라지는가"라며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바라면 지난해 한 지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병의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군이 그간 젊은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심해왔으나 "향후 전선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연구소는 65년째 세계 각국 군의 상황을 추적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폭설 뒤덮인 뉴욕 시내 13일(현지시간) 폭설에 뒤덮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자치구 가리를 한 주민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뉴욕 일대에는 2년 만의 폭설이 내려 많은 항공편이 결항하고 공립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한인 첫 연방상원 도전 앤디 김...민주 경선 선전

반기득권 당원들 지지 얻어

미국에서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 당내 경선에서 선전하는 가운데, 이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에 기인한다고 미국 언론이 평가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경선에서 당 지도부가 경선 결과를 좌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운티 라인 시스템' 등 뉴저지주의 기득권 정치에 반대하는 이들이 김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저지주 민주당은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할 때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투표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모아 놓고, 나머지 후보들은 간격을 두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카운티 라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후보들을 최대한 공평하게 일렬로 배치하는 일반적인 투표용지와 다르게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훨씬 유리하게 만든다.

이런 제도를 문제라고 여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2021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별 진척이 없으며 김 의원은 지명도가 낮은 다른 상원의원 후보들과 함께 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김 의원의 경쟁자인 테미 머피는 남편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후광을 활용해 당 지도부를 적극 공략해왔다.

이는 무명예가가되었던 필 머피가 2017년 주지사에 당선됐을 때 사용한 전략이기도 하다.

당시 필 머피는 경선 2년 전부터 지역당에 25만 달러를 사용하는 등 개인 재산 1600만달러를 경선에 투자해 주요 카운티 당의 지지를 얻었다.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폴리티코는 테미 머피가 민주당의 각 카운티 의장을 포섭하는 등 선거운동을 교과서대로 진행했지만, 기대대로 경선에서 독주하는 대신 일반 당원들의 적개심에 가까운 저항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테미 머피를 망가진 기득권으로, 김 의원을 개혁 의지를 가진 후보로 보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폴리티코는 김 의원이 지난 10일 머피 주지사 부부가 25년을 거주한 몬머스 카운티의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테미 머피에게 승리한 게 이런 반기득권 정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이·하마스 '6주 휴전·인질 석방' 협상 재개

팔레스타인 인질 비율 등 이견 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재개됐다.

논의가 일부 진전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민간인 참사를 막기 위한 휴전 중재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AP통신,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

리,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 이집트 고위 정보 관리가 회동,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돌입했다.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P 통신은 협상 소식에 정통한 복수의 관리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진전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집트의 한 고위 관리자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번 회의는 영구 휴전을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보장과 함께 6주간의 일시 휴전을 위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이집트 당국자들을 인용해 바르니아 국장이 이끄는 이스라엘 협상단이 휴전 기간과 인질과 교환될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비율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저녁 카이로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회담장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일시 휴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라파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스라엘 이라파 공격을 계속할지 여부가 국내 정치 요인에 달려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